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19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임 은 정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임 은 정

인 준 서

임은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과 함께 외모지상주의, 자기중심주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여성들의 외모가 타고나는 과거의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의 경쟁력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으로 사회적 관념과 제도들이 형성되어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나르시시즘(Narcisism)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포함하여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방법과 선택형 문항을 이용하였다. 나르시시즘은 ‘권위성’, ‘우월성’, ‘주목성’, ‘과시성’으로 4개의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외모관리행동은 ‘외모관리’, ‘적극적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의 4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자아효능감은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의 4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50대 여성 315명이었다. 자료 분석의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주성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가장 많았고,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은 10만원~20만원 미만이 제일 높게 타나났으며, 서비스 판매직의 직업이 가장 많았다. 가족 월 평균 소득에 대해 400만원~600만원 미만, 학력은 고졸,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 특성은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외모관리행동의 특성은 연령에 대해서만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효능감 특성에서는 결혼여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나르시시즘의 모든 요인들이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하였으나, 자신감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월성과 주목성은 외모관리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관리는 과시성과 주목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복관리는 주목성만 유의하였고, 체형관리는 과시성과 주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시성은 신체적 자아효능감에서만 유의하였고, 모든 요인이 자신감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관리행동의 모든 요인들은 자아효능감의 각 요인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과시성에서 의복관리, 체형관리가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은 권위성에서 적극적관리와 의복관리가 매개효과가 작용하였고, 우월성은 체형관리를 제외하고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서 권위성의 경우 의복관리만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과제난이도선호와 자신감에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20~50대 여성의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파악하고, 뷰티산업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심리적인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나르시시즘	3
2. 외모관리행동	11
3. 자아효능감	1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7
1. 연구문제	27
2. 조사대상 및 수집방법	28
3. 측정도구	28
4. 자료분석	30
IV. 연구결과 및 논의	32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2.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요인분석	33
3.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40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효능감	42
5.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8
6.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57
V. 결론	6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나르시시즘에 관한 선행연구	10
<표 2>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18
<표 3> 자아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26
<표 4> 설문지의 구성	30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33
<표 6> 나르시시즘의 요인분석	35
<표 7>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37
<표 8> 자아효능감의 요인분석	39
<표 9>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41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 특성	43
<표 1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45
<표 1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효능감 특성	47
<표 13>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50
<표 14>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3
<표 15>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6
<표 16>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58
<표 17>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60
<표 18>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62
<표 19>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매개효과	64

<표 20>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신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66

I. 서 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위해 지나친 완벽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사치와 허영 등에 사로잡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일컬어 자기중심주의 시대와 이기주의 시대,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도취의 모습과 함께 존중받기를 바란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 등을 과장되게 뛰어나다고 믿고, 환상 속에 살며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타인과의 조화보다는 개인의 우월함을 중요시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이며, 병리적인 개념보다는 정상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성격으로써 자기애적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변화에 따라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한수정, 1999).

여성들은 신체의 아름다움이 사회문화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외모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미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이유리, 2012).

사람의 외모는 첫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얼굴형, 피부색, 체격, 의복 스타일 등 가시적인 대상과 정서나 성격, 태도 등과 같은 내부적인 상태까지도 판단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김경호, 2008),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이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여 타인으로부터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혜민, 조진아, 2006).

또한,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로 이어져 심리적인 의복의

존성 및 최신 유행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애란, 이수경, 1998).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은 20대 64.5%, 30대 62.3%, 40대 66.7%, 50대 64.9%로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차이는 미비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와는 달리 ‘골드미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여성들은 생활수준의 향상, 대중매체의 발달, 외모지상주의 가치관 등의 영향으로 단순히 자신을 가꾸는 차원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넘어 사회적 성공과 지위, 부를 상징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성의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여성의 나르시시즘의 특성을 파악하여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의 영향관계의 중요성을 밝히고, 나아가 뷰티산업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나르시시즘

1) 개념

나르시시즘은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기애’라고 정의하며 자기의 자아의식에 대한 애착을 말한다. 그리스 신화 중 나르키소스 설화와 연관지어,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넥케(Nacke)는 이를 “병적인 자기사랑 또는 자기 감탄”이라고 하였다(권예슬, 2014).

나르시시즘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훌륭하다고 여기며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지는 자아도취로 자신의 능력, 외모와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위키백과, 2001).

자기심리학의 창시자 Kohut(1977)는 자기애를 정상적 발달 과정을 거치는 리비도의 한 형태로써, 인격 성숙의 적절한 발달단계를 거둬들이고, 자아에 부합하는 목적과 야망, 삶의 즐거움, 자존감에 대한 중요한 본능적인 측면을 공급함으로써 인생의 긍정적인 인격형성 과정이라고 하였다.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이 등장하면서, 감정, 사고, 행동, 대인관계 등 현상적인 모습과 병리적인 방식이 공존하는 핵심적인 특성과 함께 다양한 의미가 내재되어졌다. 이후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자를 이상적인 사랑 혹은 성공, 과장된 자신에 대한 존중, 권력에 대한 집착,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특별대우 등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지칭하

였으며, 이는 외현적 자기에의 개념으로 자기평가가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자기에적인 특징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소연, 2015).

자기에적 인격이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주된 관심이 자신에게 나타남으로 타인에게 개방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복구하려는 보상적 시도의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성격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김윤주, 1991).

나르시시즘은 대인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부분이며, 변형된 욕구의 하나로 의식수준에서의 자존감이 매우 높아 취약한 부분의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심을 견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자존감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나르시시즘의 선행연구

현대사회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적 라이프스타일로 확실한 경계와 일상생활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현대인들의 삶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만심과 외적인 허상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자립과 의존의 대조적인 행동양식으로 욕구와 희망, 인정과 사랑이 사회적 성공과 권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여성들의 나르시시즘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으며 나르시시즘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삶속에서 자존감에 따라 나르시시즘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상적인 발달로 안정적인 자존감 형성을 한 경우에는 긍정적 나르시시즘의 외현적 자기애로, 반면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부정적 나르시시즘의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어진다. 나르시시즘은 유아기 시절의 자존감 형성에 따라 이후의 삶에서 긍정적·부정적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권예슬, 2014).

사람에게는 자아를 향한 리비도 집중이 존재하며, 일부는 나중에 대상을 향해 발현된다고 하였다. 나르시시즘은 자아를 향한 리비도 집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며, 대상에게 향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리비도라고 할 수 있다(성용희, 2007). 나르시시즘은 유아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원초적인 형태의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자아의 발달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구별을 이루고 대상애를 경험한 후, 다시 일어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 구별하였다(김정희, 2008).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가 발표된 시점을 전·후로 자기애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는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이다.

정남운(2001)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를 자기애적 성격 검사의 요인구조를 통해 알아본 연구에서, NPI의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외향적이며, 자존감이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손상되고 약해진 자기표상을 복구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로 성공과 권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환진(2006)은 블로그·미니홈피 이용 동기와 이용 과정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개인 중심의 1인 미디어로 재미·자기표현, 친교로 구성되어 자기표현욕구를 표출할 공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으로부터의 주목과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으로 조사되었다.

나르시시즘적 자기표현과 외모관리, 소비성향에 관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허준보(2012)는 자신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르시시즘적 자기표현이 실제적 행동 간의 상관성을 통하여 특권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글과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ink(1991)는 자기애적 성격자는 과장되고, 과시적이며 특권의식과 거만함이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며 의식 수준의 자존감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존감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써 자신의 성취, 재능, 업적에 대한 긍지, 타인으로부터의 갈채와 인정,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거절에 대하여 분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 한다고 하였다.

박정민(1998)이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

르면, 나르시시즘은 전체적으로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흥분성과 의심성향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의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찬미성향은 전반적인 공격성향으로 이어졌고, 우월감은 흥분성과 의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할수록 타인에 대해 더욱 높은 지배성과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세란(2004)은 자기애를 외현적인 측면과 내현적인 측면으로 자기평가와 귀인양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쉽게 위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며 감정적으로 변덕이 심하다고 하였다. 성공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 업무 파트너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실패 사건에 대해 타인을 탓하는 적대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존감이 높고, 외향적이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특성으로 우월, 과시성향을 보여 자신을 과대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종욱(2010)이 자기애성향을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의 관계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외현적 자기애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며, 자신에게 주목해 주기를 요구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 타인의 존경을 바라는 우월성을 추구하므로 칭찬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리적인 특성이 강하여 의심성, 냉소주의와 관련성을 보이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부적응적 요소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긍정적 평가와 개선가능성, 만족도, 자기개념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강선희(2002)는 내현적 자기애의 척도 개발에 관한 타당화 연구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성으로 권력욕구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을 더 높게 지각하며 외향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웅대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두 유형 모두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비평에 대하여 민감

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정적 상관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순(2003)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으로 자기에 평가척도, 자기표현척도, 대인관계문제척도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기표현이 자기에적 성격(NPI)의 하위요인으로 권력, 착취, 자기·충족감, 과시성, 특권의식, 허영심, 우월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행세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이용하고 조절하는 것과 특별한 호의를 기대할 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기에성 성격이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에서 권위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표현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견이나 확신을 분명히 밝히는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지나치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의 권위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효현, 김정남(2011)이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의 문제를 신체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주목해주기를 바라는 특성인 권위주의, 우월성의 자기에적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은정, 정명선(2010)은 외모관리행동에 자기에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자기에적 성격의 과시·칭찬 욕구가 외모관리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자기에적 성격이 강할수록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한 이만홍, 육기환 (1996)에 의하면, 나르시시즘은 넘치는 자신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평가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외적인 모습과 이성에 대한 이상적인 면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인관계와 직장 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하나로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직업적인 능력과 성취에 긍정적인 평가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나르시시즘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정상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사회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되었으며, 상처받은 내면의 회복을 도와 인생의 활력과 자존감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인격에 기여하는 요소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나르시시즘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Wink (1991)	과시, 특권의식, 자존감
이만홍, 육기환 (1996)	나르시시즘, 대인관계
박정민 (1998)	특권의식, 권력, 우월감, 지배성
정남운 (2001)	나르시시즘
강선희 (2002)	권력욕구, 대인관계
최종순 (2003)	나르시시즘, 대인관계
박세란 (2004)	우월, 과시성향
최환진 (2006)	인간관계, 주목, 과시
성용희 (2007)	나르시시즘
김정희 (2008)	일차적, 이차적 나르시시즘
김중욱 (2010)	권위, 우월성
박은정, 정명선 (2010)	과시, 외모관리행동
정효현, 김정남 (2011)	과시·칭찬, 외모관리행동
허준보 (2012)	특권의식, 권위, 과시
권예슬 (2014)	긍정적 나르시시즘, 부정적 나르시시즘

2. 외모관리 행동

1) 개념

외모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을 의미한다(국어사전, 1990).

외모는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처음 만나는 모임에서 사람의 외모는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서윤경, 2003).

외모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신체의 생김새, 헤어스타일, 얼굴, 화장, 의복 등 외모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자신의 이미지 연출을 의미하며,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합쳐진 전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외모의 개념은 주로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의 좋은 외모는 ‘가름하고 작은 얼굴, 길고 가는 팔다리, 큰 키에 날씬한 몸’을 의미한다(김완석, 김철민, 2002).

외모관리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모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외모 관리 행동이라 한다(양유나, 2016).

외모관리행동이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기대이상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Gofman, 1965).

Myerson(1971)은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적 미의 기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하여 지각하고, 신체적 결점과 외모에 관하여 정신적인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수반되는 행위에 요구되는

것이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은 패션과 뷰티 제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커버하여 자신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주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연, 황진숙, 2016).

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외모로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자기관리의 능력으로 볼 수 있고, 외모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출하고 관리하는 것을 외모관리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외모관리행동의 선행연구

현대사회에서는 외모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자산의 하나로 인지됨으로써 외모관리와 개선을 위한 필요성으로 이미지메이킹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은 교육, 취업, 배우자의 선택 등의 많은 상황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는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 향상과 외모복합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지향하고 있다(강영숙, 박현경, 2009).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메이크업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사회생활의 표출이며 자기표현의 도구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의 조건에 다가가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기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장품의 사용은 대인관계에서의 인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호정, 2002).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 대하여 윤소영(2007)은 메이크업은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자신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자신감과 만족도의 상승으로 긍정적인 외모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을 하면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 표정에도 영향을 받는 결과로 피부 관리 및 메이크업은 연령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영신, 한명숙(2000)은 자아이미지와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기는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시기로 자의식이 발달하고, 외모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 심리적 측면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이미지가 높을수록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의복 구매 시 자신의 경험과 동행자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고,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혜경, 유태순(2003)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도, 의복태도, 화장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신감이 강하고 유행을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의복을 택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중요시하므로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외모관심은 자아의식을 더 자극하며 신체에 만족할수록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이미지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민아(2009)에 의하면, VMD평가와 점포구매행동을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쇼핑성향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쾌락적 쇼핑성향이 강하고 체중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의복으로 관리하며 최신유행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화 시대에 따라 외모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최신유행을 따르고자 의복 쇼핑이 단순히 구매의 목적이 아닌 과업수행의 과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명희(2000)는 자기모니터링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행동, 화장품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화장품의 사용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색조화장품의 사용은 20~30대 여성이 높았고, 40~50대 여성들은 피부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모니터링이 높은 여성들이 의복의 심미성, 화장품의 특성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품의 색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종국(2008)은 외모관리서비스의 피부 관리와 경락마사지를 이용하는 행동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피부 관리 이용부위는 얼굴이고, 경락마사지는 전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의 모든 계층에서 피부노화와 피부유형 고민 등의 이유로 주름살에 대하여 피부 관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부 관리가 중년여성의 안위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순희(2005)는 중년여성들은 피부 관리 후 우울 정도와 수면장애 및 불안정도가 낮아졌으며, 갱년기 증상의 완화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우울 및 불안을 해소하며 안위감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신주동(2007)은 외모향상행동과 장신구 착용을 성에 따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신체이미지를 외모관심, 외모자신감, 체형관리, 장신구 관심으로 분류하였으며, 헤어염색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향수와 메이크업, 장신구를 더 많이 하여 외모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수준의 발전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외모향상추구행동이 증가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며 자신의 신체 부위 및 체중조절을 통해 외모향상추구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변화를 컬러 톤과 배색에 따라 연구한 고유미(2005)는 Pale톤은 산뜻함이 증가하여 연한, 가벼운, 약한, 섬세한, 부드러운, 꿈같은 이미지가 느껴지고, Bright톤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며, Vivid톤은 자극적인, 선명한, 명쾌한, 제멋대로의 이미지가 느껴지고, Grayish톤은 어두운, 칙칙한, 침착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며, Dark톤은 단단한, 남성적인, 무게가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헤어 컬러톤에 따라 갈색이나 붉은색은 검정색보다 진보적이고 매력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헤어컬러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김아날리아(2006)는 프리틴 세대가 의복 및 유행에 민감하고 의복 관리력이 높고, 다이어트 등으로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미디어의 관여가 높을수록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외모관리행동이 나타났는데, 이는 세련되고 화려한 연예인들을

동경하여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중관리, 외모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모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애(2001)는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들은 세신과 피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가정의 총 월수입이나 한 달 용돈이 많은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얼굴부위의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외모관리행동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일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을 공적·사적 자기위식에 대해 이시원(2004)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공적 자기의식 집단이 사회적 기준으로 타인을 의식하고 외모관리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사적 자기의식 집단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바디이미지에 대하여 외모지향성, 몸무게 집착,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화숙(2002)은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을 체중조절의 경험과 신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 대상의 75%의 여성들이 마른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뚱뚱하게 인지하고 체형이나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아 적극적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이 크고 체중이 적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인지할수록 의복사용, 피부 관리, 머리손질 등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여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관리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에 대하여 연구한 허미영(1997)은 체형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른 몸의 선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변화한 성역할이 체형관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여성들끼리의 경쟁심과 자기 과시적이고 위계적인 차별로 인하여 자기 실행의 의지

를 재현하고 싶은 욕구로 나타났고,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어 균형 잡힌 몸매를 가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연숙(2005)은 피부 관리와 체형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성인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연구에서 피부 및 비만 관리는 자기만족과 건강을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리실의 조언에 따라 홈 케어를 지키고 피부타입에 따라 관리방법과 화장으로 외모를 보완하고 있으며, 관리실의 전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중년 여성의 피부와 비만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부의 탄력부족 및 주름의 집단이 많았으며 관리 후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외모관리는 오늘날 신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사회문화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며 심리적인 기대효과가 높아지는 결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외모관리행동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허미영 (1997)	체형관리
이명희 (2000)	화장품, 의복
전영신, 한명숙 (2000)	자아이미지, 의복
김정애 (2001)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
서화숙 (2002)	체중조절,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신효정 (2002)	메이크업, 외모
문혜경, 유태순 (2003)	외모관심, 유행
이시원 (2004)	바디이미지, 외모관리행동, 신체만족도
고유미 (2005)	헤어컬러
이순희 (2005)	피부관리, 안위감
홍연숙 (2005)	피부관리, 비만·체형관리
김아날리아 (2006)	의복, 외모관리행동
윤소영 (2007)	메이크업, 외모관리
신주동 (2007)	신체이미지, 외모향상추구행동
전종국 (2008)	피부관리
강영숙, 박현경 (2009)	외모관리행동
서민아 (2009)	외모, 의복쇼핑

3. 자아효능감

1) 개념

자아효능감은 심리학자 Bandura가 사회인지이론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며, 개인이 어떤 일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장기화, 2011).

자아효능감이란 구체적, 상황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자신감의 실행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개인의 확연성의 정도라 정의한다(차정은, 1997).

자아효능감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결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는 주어진 입장에서 유능함의 정도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인 동시에 특정한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자아효능감은 과제 이행에 필요한 동기와 인지적인 원천, 행동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의 자아능력에 대한 분별이며, 성공에 필요한 지적, 감정적, 신체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다(박현주, 2005).

자아효능감이 스스로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하는 것으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위를 수행하는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 평가라고 하였다. 즉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으며 간혹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위를 수월하게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별이라고 정의하였다(박은영, 1999).

자신의 기준에 의해 자신이 평가하는 개념이며, 특정과제를 잘 할 수 있

다고 확신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인지적이면서도 정의적인 특성을 가진 목표 지향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정연, 이창숙, 2002).

자신은 유능한 능력이 있으며,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써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하고(안순자, 1997),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박헌일, 김기원, 2001).

인간의 감정 능력의 하나인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도전적이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적 변화에 유연한 태도의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다. 이는 의도적이면서 목표지향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서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자아개념을 견지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자아효능감의 선행연구

자아효능감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할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각된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장애에 부딪치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오래 과제를 지속할지를 결정한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며, 이는 다시 자아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Banduar, 1977).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 수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아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정(2009)은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련태도,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외모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이 큰 것은 사회적 자아효능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감 향상의 수단으로 외모를 관리하며,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려운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외모관리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지상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외모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므로 자아효능감과 외모관리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애란, 이수경(1998)에 의하면,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에 대하여 유행선도력, 심리적 의복 의존성, 주의집중성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매력과 이상적인 외모가 인기를 얻는 요인으로 여학생들은 또래 수용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을 통한 관심과 호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감정을 자신에게 더 많이 드러내고 자신감이 크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용전공 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김미진(2014)은 무용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무용수들은 과제난이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전공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동작에 대한 도전정신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기술적 효능감, 의지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에서 남학생이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성비가 낮아 시험이나 대회에서 여학생들보다 심리적으로 경쟁의 압박을 덜 받고 입상의 기회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혜경, 유태순(2001)은 우울성향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부정적인 주위의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의복을 선택하는 동조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과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높다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회적 성공과 긍정적 피드백을 위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 자신을 꾸미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경선(2006)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교우관계, 학교공부 등 학교생활과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 태

도가 자녀들이 타인을 대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정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성격과 현실수용감이 뛰어나며 적응을 잘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경(1997)은 자기효능감과 의복행동, 감각추구성향과의 연구에서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과도기로서 이상주의, 과시행동, 무모한 행동, 수치심에 대한 예민함 등이 나타나며 발달적 전환기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신체에 민감해지며 의복이나 몸치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래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이기에 심리적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 시기는 신체적 매력을 찾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의복과 외모에 대해 자신감, 기분 전환, 행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달리기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자기 효능감의 변화를 연구한 이동일(2005)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신체적 능력과 자기표현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에서 성공했을 때 과제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라휘문(2016)은 자기효능감이 극대화 되면 직무에 따른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성취 후에 성공의 감정과 자기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효능

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신념과 가치 및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평가로 얻게 되는 과제난이도선호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의 자기효능감으로 행동과 환경, 미래행동,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서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인 기능과 인간관계로 알아본 김의철 외 3인(2005)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심리적인 특성으로 자기효능감, 긍정적 성격과 목표의식, 대리적 통제가 나타났다. 자기조절, 환경통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적인 건강이 더욱 회복되는 것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신체 및 심리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우귀, 박영신, 김의철(2008)은 성인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기조절효능감과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효능감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의 요인으로 자기조절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인관관계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진주(2016)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능동지연행동과 수동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은 전체 능동지연행동과 결과만족, 업무능력, 의도적 결정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목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적인 경험과 경력이 많을수록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으로 자신감이 크게 나타난 것은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강호선(2010)이 긍정적 자아미래상의 지속적인 인지가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인지 프로그램을 실

시험 학생이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 및 자신의 책임감에 대한 원동력과 의욕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 경험들을 통하여 과제에 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능력을 발휘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며,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측으로 판단된다.

현대인들의 삶은 경쟁사회 속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과 주변 환경을 혹사시키며, 진정한 자아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되고 수용받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감정과 함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한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고,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들의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파악하고,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의 영향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며 나르시시즘이 삶에 있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여성이 사회적 능력의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뷰티산업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자아효능감의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은 <표3>과 같다.

<표 3> 자아효능감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Bandura (1977)	자아효능감
이수경 (1997)	신체, 사회적 자기효능감
고애란, 이수경 (1998)	의복행동, 사회적 자기효능감
문혜경, 유태순 (2001)	의복태도, 사회적 자기효능감
이동일 (2005)	신체적 자기효능감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신체적 자기효능감
장경선 (2006)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2008)	자기조절효능감, 삶의 질
김현정 (2009)	외모관리, 자신감, 자아효능감
강호선 (2010)	자아효능감
김미진 (2014)	과제단이도선호, 자신감
라휘문 (2016)	자기효능감, 직무
이진주 (2016)	자신감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아개념 중에서 나르시시즘적인 정체성을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과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5.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6.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7.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은 20~50대 여성으로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지역 거주자로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에 걸쳐 설문을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 배부 중 332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총 315부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구성은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대, 직업, 학력, 외모관리 비용, 소득수준, 결혼여부로 분류하여 총 6문항으로 다지선다형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2)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채택된 하위차원의 권위성, 우월성,

주목성, 과시성의 네 가지 측면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정민(1998), 박은정, 정명선(2010)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재구성하였으며,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총 21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채택된 하위차원의 외모관리, 적극적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의 네 가지 측면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현정(2009), 서민아(2009)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재구성하였으며,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총 18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채택된 하위차원의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의 다섯 가지 측면이며, 장경선(2006), 김현정(2009), 이진주(2016)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재구성하였으며,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총 2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설문지에 관한 구성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의 구성

변인	출처	문항수	척도유형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자	6	다지선다형
나르시시즘	박정민(1998) 박은정, 정명선 (2010)	21	5점 Likert형 척도
외모관리 행동	서민아(2009) 김현정(2009)	18	
자아효능감	장경선(2006) 김현정(2009) 이진주(2016)	20	
총 문항 수		65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관한 분석 방법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이 사용되었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나르시시즘 및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통하여 산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모관리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직업, 외모관리에 사용하는 비용과 학력, 월평균 소득과 결혼 유무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외모관리 비용으로 꾸준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에 대한 지출에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월 평균 외모관리에 대한 지출비용은 학생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 환경적 제약이 높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였으며,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 전문직의 순으로 높은 빈도는 환경적 제약이 적은 직업에 속하여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30대 미혼 여성의 높은 빈도와 가족 월 평균 소득은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직업과 결혼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N=315)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20대	82	26.0
	30대	88	27.9
	40대	74	23.5
	50대	71	2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47	46.7
	대학교 졸업	108	34.3
	대학원 이상	60	19.0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	10만원 미만	88	27.9
	10만원~20만원 미만	102	32.4
	20만원~30만원 미만	48	15.2
	30만원~40만원 미만	24	7.6
	40만원 이상	53	16.8
직업	사무직	83	26.3
	서비스 판매직	87	27.6
	전문직	82	26.0
	학생	63	20.0
가족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8	12.1
	200만원~400만원 미만	91	28.9
	400만원~600만원 미만	95	30.2
	600만원 이상	91	28.9
결혼 여부	미혼	164	52.1
	기혼	151	47.9
	전체	315	100.0

2.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 행동, 자아효능감 요인분석

1) 나르시시즘

본 연구 나르시시즘의 요인분석 결과, 전체 21개의 문항 중 4개 문항은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3761.827$ (Sig=0.000)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형성할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여, KMO의 표본적합도의 점검결과 KMO값이 0.934로 드러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59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권위 추구와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권위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고유치는 4.472이고, 전체변량은 26.309%였다.

요인 2는 우월의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월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고유치는 3.141이고, 전체변량은 18.476%였다.

요인 3은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의 고유치는 2.904이고, 전체변량은 18.476%였다.

요인 4는 사람들로 부터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과시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916이고, 전체변량은 11.270%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82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43으로 조사되었다. 4개의 변인이 전체변량의 73.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박정민(1998)과 박은정, 정명선(2010)의 연구에서 요인 1, 요인 2, 요인 4에서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요인 3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네 개의 요인 적재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나르시시즘의 요인분석

요인 1. 권위성	요인부하량
사람들은 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해 주는 것 같다.	.789
나는 따르는 것 보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편이다.	.733
나는 내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731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696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81
나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662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단성이 있고 용감하게 하려고 한다.	.656
고유치=4.472 전체변량(%)=26.309 누적변량(%)=26.309 α 신뢰도=.916	
요인 2. 우월성	요인부하량
나는 남들보다 더 유능하다.	.776
나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768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736
나는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09
고유치=3.141 전체변량(%)=18.476 누적변량(%)=44.785 α 신뢰도=.900	
요인 3. 주목성	요인부하량
나는 새로운 스타일과 유행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748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729
나는 여러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703
나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612
고유치=2.904 전체변량(%)=17.081 누적변량(%)=61.866 α 신뢰도=.835	
요인 4. 과시성	요인부하량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844
나는 남에게 내 몸매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840
고유치=1.916 전체변량(%)=11.270 누적변량(%)=73.137 α 신뢰도=.822	

2) 외모관리 행동

본 연구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전체 18개의 문항 중 7개 문항은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고, 네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361.972$ (Sig=0.000)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형성할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여, KMO의 표본적합도의 점검결과 KMO값이 0.821로 드러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636 이상으

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외모관심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모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고유치는 2.709이고, 전체변량은 24.630%였다.

요인 2는 피부와 헤어 등 외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극적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고유치는 1.924이고, 전체변량은 17.491%였다.

요인 3은 의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의복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의 고유치는 1.850이고, 전체변량은 16.820%였다.

요인 4는 비만에 관한 우려와 체중감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체형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567이고, 전체변량은 14.243%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79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36으로 조사되었다. 4개의 변인이 전체변량의 73.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서민아(2009), 김현정(2009)의 연구와 4개 요인이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 네 개의 요인 적재값이 ± 0.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 또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요인 1. 외모관리	요인부하량
나의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다.	.818
내 모습이 괜찮은지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확인한다.	.799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항상 노력한다.	.764
나는 옷차림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인다.	.741
고유치=2.709 전체변량(%)=24.630 누적변량(%)=24.630 α 신뢰도=.846	
요인 2. 적극적인관리	요인부하량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헤어용 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785
나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위해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한다.	.727
피부를 가꾸기 위해 집에서 팩, 마사지를 한다.	.725
고유치=1.924 전체변량(%)=17.491 누적변량(%)=42.121 α 신뢰도=.884	
요인 3. 의복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고려해서 입는다.	.881
나는 의상쇼핑을 할 때 색과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옷을 구매한다.	.859
고유치=1.850 전체변량(%)=16.820 누적변량(%)=58.941 α 신뢰도=.798	
요인 4. 체형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남들이 살 찘다고 하면 내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840
나는 음식을 절제하고 간소하게 먹는 절식이나 단식 등으로 몸무게를 감소하려 한다.	.833
고유치=1.567 전체변량(%)=14.243 누적변량(%)=73.184 α 신뢰도=.798	

3) 자아효능감

본 연구 자아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전체 20개의 문항 중 5개 문항이 삭제되었고, 다섯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639.596$ (Sig=0.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형성할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여, KMO의 표본적합도의 점검결과 KMO값이 0.836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606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신체적 인지능력과 신체적 기술을 표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자아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고유치는 2.555이고, 전체변량은 17.037%였다.

요인 2는 상황을 통제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자기조절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고유치는 2.261이고, 전체변량은 15.073%였다.

요인 3은 사회적, 사교적 모임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자아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의 고유치는 1.997이고, 전체변량은 13.316%였다.

요인 4는 과제난이도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제난이도선호’로 명명하였다. 요인 4의 고유치는 1.846이고, 전체변량은 12.304%였다.

요인 5는 도전이나 활동에 대한 확신과 신념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의 고유치는 1.578이고, 전체변량은 10.518%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64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773으로 조사되었다. 5개의 변인이 전체변량의 68.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경선(2006), 김현정(2009)의 연구와 5개 요인이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 다섯 개의 요인 적재값이 ± 0.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자아효능감에 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아효능감의 요인분석

요인 1. 신체적 자아효능감	요인부하량
나는 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789
나는 빨리 뛰지 못한다.	.776
나는 신체의 숙련성과 연관된 검사나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이 없다.	.706
나는 신체적 움직임이 세련되지 않다.	.701
고유치=2.555 전체변량(%)=17.037 누적변량(%)=17.037 α 신뢰도=.802	
요인 2. 자기조절효능감	요인부하량
나는 주어진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다.	.827
나는 일이나 행동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789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774
고유치=2.261 전체변량(%)=15.073 누적변량(%)=32.110 α 신뢰도=.790	
요인 3. 사회적 자아효능감	요인부하량
사회적, 사교적 미팅에서 나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많다.	.810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776
사교적인 모임에서 내 자신을 조절하기 어렵다.	.622
고유치=1.997 전체변량(%)=13.316 누적변량(%)=45.426 α 신뢰도=.735	
요인 4. 과제난이도선호	요인부하량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순탄한 일보다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787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주력하고 힘쓰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745
나는 어떤 작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632
고유치=1.846 전체변량(%)=12.304 누적변량(%)=57.730 α 신뢰도=.684	
요인 5. 자신감	요인부하량
나는 힘에 겨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786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736
고유치=1.578 전체변량(%)=10.518 누적변량(%)=68.249 α 신뢰도=.645	

3.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나르시시즘의 하위요인인 권위성과 우월성, 주목성, 과시성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인 외모관리, 적극적관리, 의복관리, 체중관리와 자아효능감의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에서 $p < .05$,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하위요인인 외모관리와 적극적관리는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p < .05$, $p < .01$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성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의복관리는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의 총 자아효능감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체형관리는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해정(2004)의 외모관리가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의복이미지관리와 신체이미지관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와 체중조절, 화장과 머리모양에 대한 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이는 본 연구자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김연희(2013)는 타인인정추구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자기애의 취약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으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보였으나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은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연구를 뒷받침한다.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의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권위성	우월성	주목성	과시성	외모 관리	적극적 관리	의복 관리	체형 관리	신체적 자아 효능감	자기 조절 효능감	사회적 자아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신감
권위성	1												
우월성	.755**	1											
주목성	.692**	.660**	1										
과시성	.454**	.461**	.529**	1									
외모 관리	.390**	.472**	.522**	.319**	1								
적극적 관리	.415**	.416**	.430**	.399**	.465**	1							
의복 관리	.368**	.370**	.376**	.291**	.482**	.320**	1						
체형 관리	.176**	.174**	.266**	.274**	.366**	.344**	.183**	1					
신체적 자아 효능감	-.267**	-.286**	-.232**	-.335**	-.227**	-.118*	-.234**	.009	1				
자기 조절 효능감	.487**	.507**	.294**	.278**	.334**	.426**	.348**	.241**	-.171**	1			
사회적 자아 효능감	-.253**	-.225**	-.120*	-.189**	-.149**	-.160**	-.358**	.000	.497**	-.243**	1		
과제 난이도 선호	.535**	.526**	.347**	.397**	.299**	.298**	.239**	.190**	-.293**	.506**	-.172**	1	
자신감	-.102	-.093	-.059	-.095	-.093	.000	-.170**	.079	.537**	-.221**	.471**	-.258**	1

* $p < .05$, ** $p < .01$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효능감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 특성 차이분석

연령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권위성($p<.01$), 우월성($p<.05$), 과시성($p<.05$)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력별 구분의 경우에도 권위성($p<.01$), 우월성($p<.001$), 과시성($p<.05$) 수준으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성과 우월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과 직업의 안정에서 오는 능력에 따른 우월감과 과시성향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외모관리비용의 지출금액에 따라 나르시시즘의 특성 요인, 즉 권위성($p<.001$), 우월성($p<.001$), 주목성($p<.001$), 과시성($p<.001$)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의 지출은 40만원 이상이 우월성 3.85, 주목성 3.50, 과시성 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만원~30만원 미만은 권위성 3.59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 구분한 경우 각 집단별로 우월성($p<.05$), 주목성($p<.01$), 과시성($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족 한달 평균 수입은 권위성($p<.05$), 우월성($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결혼여부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우월성($p<.01$), 주목성($p<.05$)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 한달 평균 수입이 600만원 이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이 우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나르시시즘 특성의 우월성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나르시시즘을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다.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 특성

(N=315)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르시시즘 특성			
		권위성	우월성	주목성	과시성
전 체		3.20	3.44	3.03	2.64
연령	20대	3.03	3.43	3.12	2.48
	30대	3.43	3.65	3.16	2.76
	40대	2.96	3.18	2.78	2.40
	50대	3.36	3.46	3.02	2.92
	F	5.419**	3.139*	2.447	3.40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5	3.22	2.96	2.45
	대학교 졸업	3.24	3.51	3.00	2.75
	대학원 이상	3.50	3.86	3.24	2.91
	F	5.473**	9.785***	1.875	4.275*
월 평균 외모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2.92	3.11	2.71	2.22
	10만원~20만원 미만	3.09	3.36	2.88	2.59
	20만원~30만원 미만	3.59	3.70	3.24	2.80
	30만원~40만원 미만	3.29	3.57	3.34	2.94
	40만원 이상	3.48	3.85	3.50	3.13
	F	6.480***	6.337***	7.898***	6.531***
직업	사무직	3.12	3.31	2.74	2.55
	서비스 판매직	3.16	3.31	2.97	2.70
	전문직	3.41	3.71	3.23	2.90
	학생	3.07	3.44	3.23	2.33
	F	2.085	3.144*	4.713**	3.257*
가족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81	3.05	2.74	2.46
	200만원~400만원 미만	3.14	3.34	2.96	2.69
	400만원~600만원 미만	3.25	3.42	3.08	2.65
	600만원 이상	3.36	3.72	3.16	2.64
	F	3.637*	5.011**	1.939	0.360
결혼여부	미혼	3.25	3.61	3.14	2.72
	기혼	3.14	3.26	2.91	2.55
	t	1.152	3.210**	2.151*	1.337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연령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외모관리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력별 구분의 경우 의복관리($p<.05$)에 대해서만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외모관리($p<.001$), 적극적관리($p<.001$), 의복관리($p<.01$), 체형관리($p<.001$)의 외모관리행동 특성 요인 전부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에 대한 지출은 40만원 이상이 의복관리 4.44, 외모관리 4.20, 적극적관리와 체형관리는 3.81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별로 구분한 경우 외모관리($p<.05$)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족 한달 평균 수입은 적극적관리($p<.01$), 의복관리($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결혼여부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외모관리($p<.05$) 특성 하나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일수록 외모관리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 한달 평균 수입에 따라 적극적관리와 의복관리에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혼여성들은 체형관리에 대해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다.

<표 1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N=315)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모관리행동 특성			
		외모관리	적극적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
전 체		3.80	3.15	4.11	3.27
연령	20대	3.88	3.04	4.10	3.04
	30대	3.84	3.14	4.22	3.27
	40대	3.66	3.01	4.05	3.41
	50대	3.79	3.45	4.03	3.39
	F	0.908	2.598	0.856	1.70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3	3.03	4.04	3.16
	대학교 졸업	3.80	3.18	4.07	3.25
	대학원 이상	3.95	3.39	4.34	3.55
	F	1.452	2.549	3.211*	2.366
월 평균 외모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3.47	2.58	3.89	2.69
	10만원~20만원 미만	3.72	3.00	4.03	3.34
	20만원~30만원 미만	4.11	3.55	4.17	3.47
	30만원~40만원 미만	3.78	3.64	4.38	3.46
	40만원 이상	4.20	3.81	4.44	3.81
	F	8.415***	18.372***	5.112**	9.798***
직업	사무직	3.66	3.13	4.02	3.16
	서비스 판매직	3.69	3.22	4.05	3.32
	전문직	4.00	3.23	4.29	3.44
	학생	3.86 _a	2.99	4.06	3.12
	F	2.774	0.730	1.862	1.204
가족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3.55	2.78	3.80	3.16
	200만원~400만원 미만	3.74	2.92	4.04	3.12
	400만원~600만원 미만	3.80	3.35	4.09	3.18
	600만원 이상	3.95	3.34	4.31	3.55
	F	2.014	5.329**	4.055**	2.554
결혼여부	미혼	3.90	3.16	4.18	3.22
	기혼	3.68	3.14	4.02	3.32
	t	2.281*	0.178	1.752	-0.820

* $p<.05$, ** $p<.01$, *** $p<.001$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효능감 특성 차이분석

연령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자기조절효능감($p<.001$), 자신감($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조절효능감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자신감에 대해서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구분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p<.001$), 사회적 자아효능감($p<.01$), 과제난이도선호($p<.01$), 자신감($p<.05$)에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사회적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주어진 업무와 관련된 해결 능력이 자기조절과 과제선호, 도전이나 사교적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자기조절효능감($p<.001$), 사회적 자아효능감($p<.01$), 과제난이도선호($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의 지출은 40만원 이상이 자기조절효능감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만원~30만원 미만이 과제난이도선호 3.63으로 조사되었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사회적 자아효능감 2.63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자기조절효능감($p<.01$), 사회적 자아효능감($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족 한달 평균 수입은 자기조절효능감($p<.01$)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자아효능감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 한달 평균 수입이 600만원 이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여 자기조절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여부를 제외하고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자아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다.

<표 1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효능감 특성

(N=315)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아효능감 특성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신감
전 체			2.64	3.63	2.50	3.33	2.59
연령	20대		2.57	3.33	2.43	3.19	2.52
	30대		2.49	3.81	2.39	3.43	2.58
	40대		2.88	3.61	2.59	3.20	2.56
	50대		2.65	3.79	2.63	3.51	2.70
	F		2.289	6.123***	1.351	3.166	0.5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6	3.43	2.68	3.17	2.68
	대학교 졸업		2.60	3.75	2.44	3.41	2.60
	대학원 이상		2.42	3.92	2.17	3.58	2.33
	F		2.900	9.794***	7.269**	6.610**	3.047*
월 평균 외모 관리비용	10만원 미만		2.67	3.30	2.63	3.13	2.57
	10만원~20만원 미만		2.66	3.55	2.63	3.32	2.65
	20만원~30만원 미만		2.58	3.83	2.47	3.63	2.72
	30만원~40만원 미만		2.72	3.72	2.40	3.19	2.52
	40만원 이상		2.57	4.14	2.11	3.48	2.39
	F		0.193	10.857***	3.596**	3.798**	1.041
직업	사무직		2.70	3.61	2.58	3.25	2.77
	서비스 판매직		2.73	3.65	2.69	3.39	2.59
	전문직		2.50	3.87	2.22	3.44	2.47
	학생		2.63	3.33	2.51	3.21	2.48
	F		0.961	5.276**	4.130**	1.438	1.839
가족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99	3.24	2.82	3.08	2.75
	200만원~400만원 미만		2.60	3.59	2.54	3.28	2.61
	400만원~600만원 미만		2.51	3.61	2.49	3.33	2.58
	600만원 이상		2.67	3.88	2.34	3.49	2.50
	F		2.382	5.949**	2.541	2.520	0.691
결혼여부	미혼		2.54	3.63	2.43	3.35	2.53
	기혼		2.75	3.64	2.58	3.32	2.65
	t		-1.909	-0.200	-1.360	0.328	-1.175

* $p < .05$, ** $p < .01$, *** $p < .001$

5.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 중 외모관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306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34.19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모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우월성($\beta=.278$, $p<.001$)과 주목성($\beta=.398$, $p<.001$)은 외모관리행동 중 외모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 중 적극적관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251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25.95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주목성($\beta=.154$, $p<.05$)과 과시성($\beta=.203$, $p<.01$)이 외모관리행동 중 외모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179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16.87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복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주목성($\beta=.157$, $p<.05$) 요인 만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 중 체형관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097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8.324$,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체형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주목성($\beta=.203$, $p<.05$)과 과시성($\beta=.193$, $p<.01$)이 외모관리행동 중 체형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과시성, 권위성, 주목성, 우월성 성향이 강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한다는 박은정, 정명선(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김종욱(2010)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자기애성향에 따라 중년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의 하위요인인 주목욕구, 과시, 우월의식이 유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복관리와 몸매관리, 화장과 헤어관리의 외모관리행동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외모관리	(상수)	2.149	.162		13.300	.000
	권위성	-.103	.075	-.108	-1.372	.171
	우월성	.245	.067	.278	3.661	.000
	주목성	.356	.064	.398	5.561	.000
	과시성	.022	.043	.029	.504	.615
R=.553 R ² =.306 F=34.190 ***						
외모관리행동	(상수)	1.230	.205		6.011	.000
	권위성	.132	.095	.114	1.395	.164
	우월성	.145	.085	.135	1.710	.088
	주목성	.168	.081	.154	2.076	.039
	과시성	.187	.054	.203	3.450	.001
R=.501 R ² =.251 F=25.957 ***						
외복관리	(상수)	2.823	.164		17.194	.000
	권위성	.101	.076	.113	1.325	.186
	우월성	.114	.068	.139	1.680	.094
	주목성	.131	.065	.157	2.014	.045
	과시성	.065	.044	.092	1.497	.135
R=.423 R ² =.179 F=16.872 ***						
체형관리	(상수)	2.249	.248		9.069	.000
	권위성	-.044	.115	-.034	-.379	.705
	우월성	-.028	.103	-.024	-.278	.781
	주목성	.244	.098	.203	2.489	.013
	과시성	.196	.066	.193	2.985	.003
R=.311 R ² =.097 F=8.324 ***						

* $p < .05$, ** $p < .01$, *** $p < .001$

2)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 중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137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12.32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과시성($\beta=-.264$, $p<.001$) 요인 만 자아효능감 중 신체적 자아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303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33.61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권위성($\beta=.320$, $p<.001$)과 우월성($\beta=.372$, $p<.001$), 주목성($\beta=-.211$, $p<.01$) 요인이 자아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 중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087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7.39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권위성($\beta=-.245$, $p<.01$)과 주목성($\beta=.186$, $p<.05$) 요인이 자아효능감 중 사회적 자아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3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43.32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

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의 요인 중 권위성($\beta=.363$, $p<.001$)과 우월성($\beta=.292$, $p<.001$), 주목성($\beta=-.206$, $p<.01$), 과시성($\beta=.207$, $p<.001$) 요인 모두 자아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 중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015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1.192$,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나르시시즘의 모든 요인이 자아효능감의 자신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이원희(2001)의 연구와 자기애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성원(2018)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며, 김현정(2009)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에 대한 요인으로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로 구성되었고, 장경선(2006)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도출되었다.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과 같다.

<표 14>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신체적 자아효능감	(상수)	3.804	.201		18.969	.000
	권위성	-.083	.093	-.079	-.897	.370
	우월성	-.140	.083	-.142	-1.685	.093
	주목성	.056	.079	.056	.700	.484
	과시성	-.222	.053	-.264	-4.166	.000
	R=.370 R ² =.137 F=12.329 ***					
자기 조절효능감	(상수)	2.046	.154		13.315	.000
	권위성	.289	.071	.320	4.059	.000
	우월성	.310	.064	.372	4.886	.000
	주목성	-.178	.061	-.211	-2.933	.004
	과시성	.052	.041	.072	1.274	.204
	R=.550 R ² =.303 F=33.612 ***					
자아효능감	(상수)	3.366	.197		17.113	.000
	권위성	-.248	.091	-.245	-2.723	.007
	우월성	-.097	.081	-.103	-1.188	.236
	주목성	.176	.078	.186	2.265	.024
	과시성	-.103	.052	-.128	-1.968	.050
	R=.295 R ² =.087 F=7.399 ***					
과제난이도선호	(상수)	1.614	.144		11.185	.000
	권위성	.322	.067	.363	4.808	.000
	우월성	.239	.060	.292	4.008	.000
	주목성	-.171	.057	-.206	-2.992	.003
	과시성	.145	.038	.207	3.788	.000
	R=.599 R ² =.359 F=43.320 ***					
자신감	(상수)	2.951	.204		14.500	.000
	권위성	-.083	.094	-.082	-.878	.380
	우월성	-.036	.084	-.038	-.422	.673
	주목성	.057	.081	.061	.714	.476
	과시성	-.058	.054	-.072	-1.067	.287
	R=.123 R ² =.015 F=1.192					

* $p < .05$, ** $p < .01$, *** $p < .001$

3)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 중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082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6.91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외모관리($\beta=-.180$, $p<.05$)와 의복관리($\beta=-.161$, $p<.05$) 요인이 자아효능감 중 신체적 자아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241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24.59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모관리행동 요인 중 적극적관리($\beta=.303$, $p<.001$)와 의복관리($\beta=.205$, $p<.001$) 요인이 자아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 중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139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12.508$,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모관리행동 요인 중 의복관리($\beta=-.363$, $p<.001$) 요인 만 자아효능감 중 사회적 사회적 자아효능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132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

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11.744$,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모관리행동 요인 중 외모관리($\beta=.147$, $p<.05$)와 적극적관리($\beta=.177$, $p<.01$) 요인이 자아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 중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046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 $F=3.747$,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의복관리($\beta=-.171$, $p<.01$)와 체형관리($\beta=.122$, $p<.05$) 요인이 자아효능감 중 자신감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현정(2009), 이수경(1997)의 선행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와 의복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5>과 같다.

<표 15>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신체적자아효능감	(상수)	3.948	.303		13.024	.000 ^{***}
	외모관리	-.200	.077	-.180	-2.610	.010 [*]
	적극적관리	-.019	.058	-.020	-.322	.747
	의복관리	-.192	.075	-.161	-2.579	.010 [*]
	체형관리	.092	.049	.111	1.858	.064
		R=.286	R ² =.082	F=6.919	***	
자기조절효능감	(상수)	1.623	.235		6.911	.000 ^{***}
	외모관리	.063	.059	.066	1.058	.291
	적극적관리	.236	.045	.303	5.265	.000 ^{***}
	의복관리	.208	.058	.205	3.605	.000 ^{***}
	체형관리	.053	.038	.075	1.378	.169
		R=.491	R ² =.241	F=24.590	***	
사회적자아효능감	(상수)	4.077	.280		14.563	.000 ^{***}
	외모관리	.040	.071	.038	.569	.570
	적극적관리	-.079	.053	-.090	-1.472	.142
	의복관리	-.412	.069	-.363	-5.988	.000 ^{***}
	체형관리	.066	.046	.083	1.437	.152
		R=.373	R ² =.139	F=12.508	***	
과제난이도선호	(상수)	1.847	.246		7.503	.000 ^{***}
	외모관리	.137	.062	.147	2.195	.029 [*]
	적극적관리	.135	.047	.177	2.876	.004 ^{**}
	의복관리	.100	.061	.100	1.650	.100
	체형관리	.040	.040	.057	.983	.326
		R=.363	R ² =.132	F=11.744	***	
자신감	(상수)	3.244	.294		11.054	.000 ^{***}
	외모관리	-.082	.074	-.078	-1.109	.268
	적극적관리	.043	.056	.049	.760	.448 ^{**}
	의복관리	-.194	.072	-.171	-2.680	.008 ^{**}
	체형관리	.096	.048	.122	2.006	.046 [*]
		R=.215	R ² =.046	F=3.747	**	

* $p < .05$, ** $p < .01$, *** $p < .001$

6.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매개 효과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 하나가 위치한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를 거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독립변수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을 유의확률 결과로 확인해 보면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독립변수로는 ‘나르시시즘’, 매개변수로는 ‘외모관리행동’, 종속변수를 자아효능감 중 ‘신체적 자아효능감’으로 매개 회귀분석 한 두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 β 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요인을 매개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

독립변인1($F=12.329, p<.001$)인 과시성($\beta=-.264, p<.001$)요인 > 독립변인4($F=10.796, p<.001$)인 과시성($\beta=-.253,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관리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변인1($F=12.329, p<.001$)인 과시성($\beta=-.264, p<.001$)요인 > 독립변인5($F=10.856, p<.001$)인 과시성($\beta=-.253,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β 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체형관리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신체적 자아효능감	(상수)	3.804	0.201		18.969	0.000***	
	권위성	-0.083	0.093	-0.079	-0.897	0.370	
	우월성	-0.140	0.083	-0.142	-1.685	0.093	
	주목성	0.056	0.079	0.056	0.700	0.484	
	과시성	-0.222	0.053	-0.264	-4.166	0.000***	
	R=.370 R ² =.137 F=12.329 ***						
		(상수)	4.058	0.251		16.196	0.000***
		권위성	-0.096	0.093	-0.090	-1.028	0.305
		우월성	-0.111	0.084	-0.113	-1.311	0.191
		주목성	0.098	0.083	0.098	1.177	0.240
		과시성	-0.219	0.053	-0.261	-4.129	0.000***
		외모관리	-0.118	0.07	-0.106	-1.685	0.093
	R=.381 R ² =.145 F=10.489 ***						
		(상수)	3.720	0.212		17.572	0.000***
		권위성	-0.092	0.093	-0.087	-0.991	0.322
	우월성	-0.149	0.083	-0.152	-1.796	0.074	
	주목성	0.044	0.080	0.044	0.554	0.580	
	과시성	-0.234	0.054	-0.279	-4.326	0.000***	
	적극적관리	0.068	0.056	0.074	1.217	0.224	
R=.376 R ² =.141 F=10.175 ***							
	(상수)	4.201	0.279		15.065	0.000***	
	권위성	-0.069	0.093	-0.065	-0.746	0.456	
	우월성	-0.124	0.083	-0.126	-1.492	0.137	
	주목성	0.074	0.079	0.074	0.931	0.353	
	과시성	-0.212	0.053	-0.253	-4.000	0.000***	
	외모관리	-0.141	0.069	-0.118	-2.04	0.042*	
R=.386 R ² =.149 F=10.796 ***							
	(상수)	3.588	0.224		15.994	0.000***	
	권위성	-0.079	0.092	-0.075	-0.857	0.392	
	우월성	-0.137	0.082	-0.140	-1.660	0.098	
	주목성	0.032	0.080	0.032	0.403	0.687	
	과시성	-0.240	0.054	-0.286	-4.482	0.000***	
	체형관리	0.096	0.046	0.116	2.103	0.036*	
R=.387 R ² =.149 F=10.856 ***							

* $p < .05$, ** $p < .01$, *** $p < .001$

2)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독립변인1($F=33.612, p<.001$)인 권위성($\beta=.320, p<.001$)요인 > 독립변인3($F=34.155, p<.001$)인 권위성($\beta=.289,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β 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권위성 요인의 경우 적극적관리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독립변인1($F=33.612, p<.001$)인 권위성($\beta=.320, p<.001$)요인 > 독립변인4($F=30.475, p<.001$)인 권위성($\beta=.299,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관리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인1($F=33.612, p<.001$)인 우월성($\beta=.372, p<.001$)요인 > 독립변인2($F=29.534, p<.001$)인 우월성($\beta=.323,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월성 요인의 경우 외모관리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인1($F=33.612, p<.001$)인 우월성($\beta=.372, p<.001$)요인 > 독립변인3($F=34.155, p<.001$)인 우월성($\beta=.336,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관리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변인1($F=33.612, p<.001$)인 우월성($\beta=.372, p<.001$)요인 > 독립변인4($F=30.475, p<.001$)인 우월성($\beta=.346,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β 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의복관리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로 '나르시시즘', 매개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종속변수를 자아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으로 매개 회귀분석 한 두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1	(상수)	2.046	0.154		13.315	0.000***
	관취성	0.289	0.071	0.320	4.059	0.000***
	우월성	0.310	0.064	0.372	4.886	0.000***
	주목성	-0.178	0.061	-0.211	-2.933	0.004**
	과시성	0.052	0.041	0.072	1.274	0.204
R=.550 R ² =.303 F=33.612 ***						
2	(상수)	1.692	0.190		8.910	0.000***
	관취성	0.306	0.070	0.338	4.342	0.000***
	우월성	0.270	0.064	0.323	4.221	0.000***
	주목성	-0.237	0.063	-0.280	-3.765	0.000***
	과시성	0.048	0.040	0.067	1.202	0.230
외모관리	0.164	0.053	0.173	3.086	0.002**	
R=.569 R ² =.323 F=29.534 ***						
3	(상수)	1.790	0.156		11.456	0.000***
	관취성	0.262	0.069	0.289	3.804	0.000***
	우월성	0.280	0.061	0.336	4.563	0.000***
	주목성	-0.213	0.059	-0.252	-3.619	0.000***
	과시성	0.013	0.040	0.018	0.325	0.745
적극적관리	0.208	0.041	0.267	5.064	0.000***	
R=.597 R ² =.356 F=34.155 ***						
4	(상수)	1.519	0.211		7.206	0.000***
	관취성	0.270	0.070	0.299	3.856	0.000***
	우월성	0.289	0.063	0.346	4.616	0.000***
	주목성	-0.203	0.060	-0.239	-3.376	0.001**
	과시성	0.040	0.040	0.055	0.990	0.323
의복관리	0.187	0.052	0.184	3.578	0.000***	
R=.575 R ² =.330 F=30.475 ***						
5	(상수)	1.771	0.170		10.436	0.000***
	관취성	0.295	0.070	0.326	4.209	0.000***
	우월성	0.314	0.062	0.376	5.031	0.000***
	주목성	-0.208	0.060	-0.246	-3.452	0.001**
	과시성	0.028	0.041	0.039	0.688	0.492
체형관리	0.122	0.035	0.173	3.535	0.000***	
R=.574 R ² =.330 F=30.387 ***						

* $p < .05$, ** $p < .01$, *** $p < .001$

3)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독립변인1($F=7.399, p<.001$)인 권위성($\beta=-.245, p<.01$)요인 > 독립변인4($F=12.755, p<.001$)인 권위성($\beta=-.209, p<.05$)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β 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권위성 요인의 경우 의복관리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변수로는 ‘나르시시즘’, 매개변수로는 ‘외모관리행동’, 종속변수로는 자아효능감 중 ‘사회적 자아효능감’으로 매개 회귀분석 한 두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 행동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1	(상수)	3.366	0.197		17.113	0.000***
	권위성	-0.248	0.091	-0.245	-2.723	0.007**
	우월성	-0.097	0.081	-0.103	-1.188	0.236
	주목성	0.176	0.078	0.186	2.265	0.024*
	외모관리	-0.103	0.052	-0.128	-1.968	0.050
R=.295 R ² =.087 F=7.399 ***						
2	(상수)	3.565	0.246		14.480	0.000***
	권위성	-0.258	0.091	-0.255	-2.822	0.005**
	우월성	-0.074	0.083	-0.079	-0.892	0.373
	주목성	0.209	0.082	0.221	2.566	0.011*
	외모관리	-0.101	0.052	-0.126	-1.931	0.054
R=.304 R ² =.092 F=6.293 ***						
3	(상수)	3.429	0.208		16.498	0.000***
	권위성	-0.241	0.092	-0.238	-2.639	0.009**
	우월성	-0.089	0.082	-0.095	-1.091	0.276
	주목성	0.185	0.078	0.195	2.360	0.019*
	외모관리	-0.093	0.053	-0.116	-1.749	0.081
R=.300 R ² =.090 F=6.097 ***						
4	(상수)	4.391	0.262		16.735	0.000***
	권위성	-0.212	0.087	-0.209	-2.425	0.016*
	우월성	-0.055	0.078	-0.059	-0.708	0.479
	주목성	0.224	0.075	0.236	2.994	0.003**
	외모관리	-0.079	0.050	-0.099	-1.581	0.115
R=.414 R ² =.171 F=12.755 ***						
5	(상수)	3.275	0.221		14.797	0.000***
	권위성	-0.247	0.091	-0.244	-2.702	0.007**
	우월성	-0.095	0.081	-0.102	-1.173	0.242
	주목성	0.166	0.079	0.176	2.116	0.035*
	외모관리	-0.111	0.053	-0.138	-2.090	0.037*
R=.299 R ² =.090 F=6.077 ***						

* $p < .05$, ** $p < .01$, *** $p < .001$

4)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매개효과

독립변인1($F=43.320$, $p<.001$)인 권위성($\beta=.363$, $p<.001$)요인 > 독립변인3($F=24.590$, $p<.001$)인 권위성($\beta=.358$, $p<.001$)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매개변수인 적극적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독립변인1($F=43.320$, $p<.001$)인 우월성($\beta=.292$, $p<.001$)요인, 독립변인1($F=43.320$, $p<.001$)인 과시성($\beta=.207$, $p<.001$)요인 > 독립변인2($F=34.741$, $p<.001$)인 우월성($\beta=.268$, $p<.001$)요인, 독립변인2($F=34.741$, $p<.001$)인 과시성($\beta=.204$, $p<.001$)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외모관리는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독립변인1과 독립변인 4와 독립변인 5의 경우 또한 β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매개변수인 의복관리, 체형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다는 결론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로는 ‘나르시시즘’, 매개변수로는 ‘외모관리행동’, 종속변수로는 자아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로 매개 회귀분석 한 두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과 제 난 이 도 선 호	(상수)	1.614	0.144		11.185	0.000***	
	권위성	0.322	0.067	0.363	4.808	0.000***	
	우월성	0.239	0.060	0.292	4.008	0.000***	
	1	주목성	-0.171	0.057	-0.206	-2.992	0.003**
	과시성	0.145	0.038	0.207	3.788	0.000***	
	R=.599 R ² =.359 F=43.320 ***						
		(상수)	1.439	0.180		7.978	0.000***
	권위성	0.330	0.067	0.373	4.931	0.000***	
	우월성	0.219	0.061	0.268	3.607	0.000***	
	2	주목성	-0.200	0.060	-0.241	-3.345	0.001**
	과시성	0.143	0.038	0.204	3.750	0.000***	
	외모관리	0.081	0.051	0.088	1.610	0.108	
	R=.600 R ² =.360 F=34.741 ***						
		(상수)	1.575	0.153		10.322	0.000***
	권위성	0.318	0.067	0.358	4.728	0.000***	
우월성	0.235	0.060	0.287	3.910	0.000***		
3	주목성	-0.176	0.058	-0.212	-3.063	0.002**	
과시성	0.139	0.039	0.198	3.562	0.000***		
적극적관리	0.032	0.040	0.042	0.794	0.428		
R=.491 R ² =.241 F=24.590 ***							
	(상수)	1.566	0.202		7.753	0.000***	
권위성	0.320	0.067	0.361	4.762	0.000***		
우월성	0.237	0.060	0.290	3.952	0.000***		
4	주목성	-0.173	0.058	-0.209	-3.007	0.003**	
과시성	0.144	0.038	0.205	3.740	0.000***		
의복관리	0.017	0.050	0.017	0.341	0.733		
R=.599 R ² =.359 F=34.580 ***							
	(상수)	1.488	0.162		9.191	0.000***	
권위성	0.324	0.067	0.366	4.859	0.000***		
우월성	0.241	0.059	0.294	4.047	0.000***		
5	주목성	-0.185	0.058	-0.223	-3.211	0.001**	
과시성	0.134	0.039	0.191	3.460	0.001**		
체형관리	0.056	0.033	0.082	1.712	0.088		
R=.604 R ² =.365 F=35.458 ***							

* $p < .05$, ** $p < .01$, *** $p < .001$

5)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신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독립변인1과 독립변인 2의 β 값의 크기비교를 통해 외모관리행동 중 외모관리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모든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매개변수인 외모관리 요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독립변인1과 독립변인 3과 독립변인 4, 독립변인 5의 경우 또한 β 값을 크기비교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매개변수인 적극적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다는 결론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로는 ‘나르시시즘’, 매개변수로는 ‘외모관리행동’, 종속변수로는 자아효능감 중 ‘자신감’을 매개 회귀분석 한 두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신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자 신 감	1	(상수)	2.951	0.204		14.500	0.000***	
		권위성	-0.083	0.094	-0.082	-0.878	0.380	
		우월성	-0.036	0.084	-0.038	-0.422	0.673	
		주목성	0.057	0.081	0.061	0.714	0.476	
		과시성	-0.058	0.054	-0.072	-1.067	0.287	
	R=.123 R ² =.019 F=1.192(.314)							
		2	(상수)	3.119	0.255		12.236	0.000***
			권위성	-0.091	0.095	-0.090	-0.961	0.337
			우월성	-0.016	0.086	-0.018	-0.190	0.849
			주목성	0.085	0.084	0.091	1.012	0.312
		과시성	-0.056	0.054	-0.070	-1.036	0.301	
		외모관리	-0.079	0.071	-0.074	-1.098	0.273	
R=.138 R ² =.019 F=1.195(.311)								
	3	(상수)	2.876	0.215		13.376	0.000***	
		권위성	-0.091	0.095	-0.090	-0.961	0.337	
		우월성	-0.044	0.085	-0.048	-0.525	0.600	
		주목성	0.047	0.081	0.050	0.583	0.561	
		과시성	-0.069	0.055	-0.086	-1.256	0.210	
		적극적관리	0.061	0.056	0.070	1.082	0.280	
R=.137 R ² =.019 F=1.188(.315)								
	4	(상수)	3.449	0.282		12.229	0.000***	
		권위성	-0.065	0.094	-0.065	-0.694	0.488	
		우월성	-0.015	0.084	-0.017	-0.184	0.854	
		주목성	0.081	0.080	0.085	1.003	0.317	
		과시성	-0.046	0.054	-0.058	-0.859	0.391	
		의복관리	-0.176	0.070	-0.156	-2.527	0.012*	
R=.187 R ² =.035 F=2.247(.050)								
	5	(상수)	2.747	0.228		12.054	0.000***	
		권위성	-0.079	0.094	-0.078	-0.840	0.402	
		우월성	-0.033	0.084	-0.035	-0.393	0.694	
		주목성	0.035	0.081	0.037	0.437	0.663	
		과시성	-0.075	0.054	-0.094	-1.383	0.168	
		체형관리	0.091	0.046	0.115	1.953	0.052	
R=.165 R ² =.027 F=1.725(.12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며,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총 315명이었다.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매개 효과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이며,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비용은 10만원~20만원 미만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은 서비스 판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와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연령과 학력에서는 주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직업의 경우는 주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나르시시즘 특성 요인 전부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는 학력의 경우 의복관리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었고, 직업과 결혼 여부만이 외모관리에 대해서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외모관리행동 특성 요인 전부에 대해 차이를 나타냈으며, 연령에 대해서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의 차이는 신체적 자아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결혼여부는 자아효능감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나르시시즘의

권위성, 우월성, 주목성, 과시성은 자아효능감의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의복관리만이 자신감에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체형관리는 신체적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자아효능감, 자신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월성과 주목성이 외모관리행동 중 외모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적극적관리는 과시성과 주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목성은 의복관리에만 유의미하였고, 과시성과 주목성은 외모관리행동 요인으로 체형관리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나르시시즘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시성은 신체적 자아효능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과 사회적 자아효능감에는 무의미하였다. 또한 모든 요인이 자신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외모관리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외모관리는 신체적 자아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에 유의하였고, 의복관리는 과제난이도선호를 제외한 신체적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자신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관리는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에 유의하였고, 체형관리는 자신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매개효과로 의복관리와 체형관리가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과시성 요인의 경우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매개효과가 있었다.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자기조절효능감에 적극적관리와 의복관리는 권위성과 우월성에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외모관리는 우월성에 작용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의복관리가 매개변수로 작용

하여 권위성 요인의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지역에 한정되었고,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임의추출을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써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만으로 수집되어졌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자아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자아효능감에 대한 구분 및 타당성 연구가 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르시시즘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에 심층적으로 연구,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숙, 박현경 (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5(1), pp. 363-373.
- 강호선 (2010), 긍정적 자아미래상의 지속적인지가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유미 (2005), 컬러톤과 배색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애란, 이수경 (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80-81.
- 김경호 (2008), 이미지메이킹의 이론과 실제, 서울: 높은 오름.
- 김미진 (2014), 무용전공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무용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우 이유리 (2012),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2,30대 여성의 미 인식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소비자학회지, 23(2), pp.351-382.
- 김소연 (2015), 내현적 자기와 외현적 자기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날리아 (2006),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미디어관여, 신체 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주 (1993), 자기에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13), 자기에 취약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추구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2), pp.143-181.
- 김완석, 김철민 (2002), 몸의 심리학: 몸에 대한 생각과 소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pp.1-20.
- 김정희 (2008), 인터넷 동영상 UCC에 드러나는 나르시시즘적 표현 양상,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욱 (2010), 중년여성의 자기에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애 (200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욱 (2010), 중년여성의 자기에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4), 외모관리: 자기에적 성격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예슬 (2014), 21세기 현대 여성적 나르시시즘 현상을 바탕으로 한 무용 창작 작품 '검은 유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라휘문 (2016), 자기효능감이 직무태도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 연구, 30(2), pp.1-23.
- 문혜경, 유태순 (2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성향 및 스트레스정도에 따라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1(5), pp. 77-94.
-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복식, 53(4), pp.101-112.
- 박현주 (2005), 학업성취사와 귀인성향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1999), 자기 성장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취업 면접 태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논총, 19, pp.7-23.
- 박정민 (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정명선 (2010), 여대생의 자기에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pp.717-730.
- 박수연, 황진숙 (2016), 패션/ 뷰티TV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17(5), pp.279-288.
-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용희 (2007), 비디오 매체에서의 자기반사성 self-reflection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아 (2009), 20대 남성소비자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쇼핑성향, VMD평가, 점포구매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화숙 (2002), 여대생들의 체중조절 경험과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동 (2007), 대학생의 성에 따른 외모향상행동과 장신구 착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순자 (199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민, 조진아 (2006), 여성의 메이크업과 네일 디자인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2(2), pp.1-12.
- 양유나 (2016), 무용 예술 전공자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및 관리행동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홍, 육기환 (1996), 한국인이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에 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3), pp.678-689.
- 이명희 (2000), 자기모니터링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행동 및 사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5), pp.71-84.

- 이순희 (2005), 피부관리가 중년여성의 안위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원 (2004), 공적·사적 자기위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교문사.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이창숙 (200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1-9.
- 이수경 (1997),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일 (2005), 건강달리기 프로그램 참여 전·후간 신체적 자기 효능감 변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주 (2016),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능동/수동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화 (2011), 청소년 아침식사의 합리적 섭식행동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선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2008), 성인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pp.22-23.
- 장미숙 (2009), 여성의 외모관리와 체형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성원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효현, 김정남 (2011),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 관계 문제에서 신체 만족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pp.1599-1611.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pp.221-237.
- 전영신, 한명숙 (2000), 여고생의 자아 이미지와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 pp.94-109.
- 전종국 (2008), 외모관리서비스 이용 행동과 만족도-피부 관리와 경락마사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환진 (2006), 대학생의 블로그·미니홈피 이용 동기와 이용 과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7(3), pp.225-248.
- 최종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보 (2012), 페이스북 이용자의 나르시시즘적 자기표현과 외모관리,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영 (1997), 여성의 체형관리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비비드’ 체형관리실 사례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숙 (2005), 성인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관리 및 체형관리 실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 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Washington D.C.: Author.
- Gofman (1965), Identity Kits in M. E. Roach & J.B. Elcher(EDS), Dressed Adornments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Son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yerson, L. (1971), Somato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In W. M. Cruickshank(Eds),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p.590-597.

< 인터넷 자료 >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A5%B4%EC%8B%9C%EC%8B%9C%EC%A6%98>, (검색일: 2019, 02, 10.)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7f21f8d6c3344f39f39ecfd614164e3> (검색일: 2019, 03, 05.)

통계청: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
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19. 01. 13.)

ABSTRACT

The Effect of Narcissis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ectiveness

eun-jung Yim

Make-up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Fusion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modern society enters the 21st century, an era of lookism and egocentrism along with excessive perfectionism emerged. The appearance of women is no longer innate as it was in the past and with many social concepts and institutions formed to increase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aking care of the appearance, it has evolved as one of the competitiveness of women that should be mana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women's narcissis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iency and find out the correlations.

The researcher used survey questionnaire as the research method, and used narcissism,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iency,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as measurement tools. The five-point Likert method and optional questions were used as the measurement

method. Narcissism was named using the following four factors: 'authority,' 'superiority,' 'tendency to receive attention,' and 'tendency to show off.'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sed the following four factors: 'appearance management,' 'active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and 'weight management.' Self-efficiency has used four factors: 'physical self-efficiency,' 'self-regulating efficacy,' 'social self-efficiency,' 'challenging preference,' and 'self-confidence.' The study targeted women 315 women in their 20s to 50s. The method of data analysis w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main component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ed effec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tatistical research, people in their 30s had the largest proportion, and 100,000KRW to 200,000 KRW had the highest average amount of money spent on appearance management a month, and service sale related jobs had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occupation criteria.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family was less than 4 million KRW to 6 million KRW,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high school graduates and single women.

Second, narcissist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did not differ only on 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lf-efficiency did not have any difference caused by marital status.

Third, in the correlation of narcissism,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iency, every factor of narcissism was significan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xcept for 'self-confidence'.

Fourth, in the effect of narcissis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uperiority and the tendency to receive attention were significant on appearance management, and active management was significant on the tendency to show off, and the tendency to receive attention. Clothing management was only significant on the tendency to receive attention, and weight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endency to show off and receive attention.

Fifth, in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elf-efficiency, the tendency to show off was only significant on physical self-efficiency, and no other factors had any significant effect on self-confidence.

Sixth, in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self-efficiency, every factor i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as significant on every factor of self-efficiency.

Seventh, for the mediated effect of narciss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physical self-efficiency, the mediated effects of clothing management and weight management were shown in the tendency to show off. For self-regulating efficacy, the mediated effect of active management and clothing management was shown on authority, and all the factors had mediated effect on superiority except for weight management. For the mediated effect of narciss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the authority of social self-efficiency, only clothing management had mediated effect and had no mediate effect on challenging preference and self-confidence.

The researchers could confirm that narcissism was a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i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of narcissis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women in 20s to 50s, as narcissism was found to influenc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t also strives to contribute to the field of psychological research that understands the beauty industry and human nature.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어지며, 통계법 제 13조에 따라서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 통계처리 되어 연구 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연구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설문에 응답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 김경희

연구자: 임은정

I. 다음은 나르시시즘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	나는 남에게 내 몸매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내 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3	나는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한다.					
4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5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새로운 스타일과 유행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7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8	나는 내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9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	나는 자기주장이 강하다.					
11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단성이 있고 용감하게 하려고 한다.					
12	나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13	나는 따르는 것 보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편이다.					
14	사람들은 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해 주는 것 같다.					
15	나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16	나는 여러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17	나는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19	나는 남들보다 더 유능하다.					
20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21	나는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 나갈 수 있다.					

II.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	나는 의복쇼핑을 할 때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상을 산다.					
2	나는 의복쇼핑을 할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3	나는 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고려해서 입는다.					
4	나는 의상쇼핑을 할 때 색과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옷을 구매한다.					
5	나는 스킨, 로션 정도의 기초화장품을 사용한다.					
6	나는 자주 향수를 사용한다.					
7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헤어용 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8	피부를 가꾸기 위해 집에서 팩, 마사지를 한다.					
9	나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위해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한다.					
10	나는 보다 나은 피부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한다.					
11	나는 비만에 대해 자주 걱정하고 있다.					
12	나는 남들이 살 찼다고 하면 내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13	나는 음식을 절제하고 간소하게 먹는 절식이나 단식 등으로 몸무게를 감소하려 한다.					
14	나는 매일 몸매 가꾸기를 위해 운동을 하는 편이다.					
15	나는 옷차림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인다.					
16	내 모습이 괜찮은지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확인한다.					
17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항상 노력한다.					
18	나의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다.					

Ⅲ. 다음은 자아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	사회적, 사교적 미팅에서 나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많다.					
2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3	나는 빨리 뛰지 못한다.					
4	나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5	나는 어떤 작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6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순탄한 일보다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7	지금의 내 친구들을 내 사교성으로 사귀었다.					
8	나는 신체적 움직임이 세련되지 않다.					
9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0	나는 주어진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다.					
11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12	나는 힘에 겨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13	나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14	즐거운 일이나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도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한다.					
15	나는 신체의 숙련성과 연관된 검사나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이 없다.					
16	나는 일이나 행동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7	나는 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18	사교적인 모임에서 내 자신을 조절하기 어렵다.					
19	만약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택할 것이다.					
20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주력하고 힘쓰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IV.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입니다.

1)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2) 귀하의 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이상

3) 귀하가 한 달 평균 외모관리로 지출하는 비용은?

- ① 10만원 미만 ② 20만원 미만 ③ 30만원 미만
④ 40만원 미만 ⑤ 40만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①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② 서비스 판매직(요리사, 미용사, 판매원, 고객관리 등)
③ 전문직(의사, 연구원, 교수, 디자이너, 강사 등)
④ 학생

5) 귀하의 가정 전체 합산한 한 달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이다. ② 200-400만원 미만이다.
③ 400-600만원 미만이다. ④ 600만원 이상이다.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미혼 ② 기혼

- 감사합니다. -